

잡아함 4. 무지경(無知經) ②

날짜: 10월 9th, 2023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454>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색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, 밝지 못하며, 끊지 못하고, 탐욕을 떠나지 못하여 마음이 거기서 해탈하지 못한다면, 그는 태어남 · 늙음 · 병듦 ·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할 수 없다.

이와 같이 수 · 상 · 행 · 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, 밝지 못하며, 끊지 못하고, 탐욕을 떠나지 못하여 마음이 거기서 해탈하지 못한다면, 그는 태어남 · 늙음 · 병듦 ·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할 수 없다.

비구들아, 만일 색에 대해서 잘 알고, 밝으며, 잘 끊고, 탐욕을 떠난다면, 그는 태어남 · 늙음 · 병듦 ·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다.

비구들아, 만일 잘 알고, 밝으며, 잘 끊고, 탐욕을 떠나 마음이 해탈한다면, 그는 태어남 · 늙음 · 병듦 ·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다.

이와 같이 수 · 상 · 행 · 식에 대해서 만일 잘 알고, 밝으며,
잘 끊고, 탐욕을 떠나 마음이 거기서 해탈한다면, 그는 태어남
· 늙음 · 병듦 ·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다.”

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밤들어
행하였다.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